

10

가정예배 · 구역예배

충현의 만나 2010

가정예배 말라기 · 창세기

마태복음 · 마가복음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10

충현의 만나

2010

가정예배 말라기 · 창세기
 마태복음 · 마가복음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10

2010
October

주 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 말라기 3장	4 말라기 4장	5 창세기 1장	6 창세기 2장
10 창세기 6장	11 창세기 7장	12 창세기 8장	13 마태복음 26장
17 마가복음 2장	18 마가복음 3장	19 마가복음 4장	20 마가복음 5장
24 마가복음 9장	25 마가복음 10장	26 마가복음 11장	27 마가복음 12장
31 마가복음 16장			

November

1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Memo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말라기 1장

2 말라기 2장

7 창세기 3장

8 창세기 4장

9 창세기 5장

14 마태복음 27장

15 마태복음 28장

16 마가복음 1장

21 마가복음 6장

22 마가복음 7장

23 마가복음 8장

28 마가복음 13장

29 마가복음 14장

30 마가복음 15장

교회 주요일정

10월 20일

임직예배(장로/안수집사/권사)

10월 22일

제3차 청지기훈련

10월 24일

제5차 학습세례식

10월 31일

종교개혁주일

나의 주요일정

- 1 2010년 제3차 청지기훈련(10월 22일 금요일 7시)에 모든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여 참석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 2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살전 4:13~18)하며 매순간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소서.
- 3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 4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 5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6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 일꾼(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 7 1년 1인 1명(1·1·1)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딤후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 8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9 충현의 재단들(유지·동산·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양로원, 함양충현농원)과 공사 중인 사랑관(충현기도원) 및 준공된 자연장(납골시설)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2)가 되게 하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훌륭한 교사라고 합니다.
예수를 탁월한 인격자라고 합니다.
예수를 베스트셀러의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성공적인 CEO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골 2:9~10).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실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진정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2010년 10월을 맞아 하계 은빛목사 김성관

●●● 가정예배 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낭독	사회자
기 도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가 정 예 배

매일 성경묵상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

말라기 1장 · 찬송가 410장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을 못 참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2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조건 없이 택하셨고 지금도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2~5절). 오히려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조건 없는 사랑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육신적 기대(식민지 해방)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또 배반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적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나온 결과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같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 상태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당신의 피로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신자의 구원의 은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무능력과 전적인 부패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됨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길이요 살 길임을 널리 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말 1:14)

기도제목

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죄와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②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실전 4:13~18)하며 매순간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두 가지 커다란 규례를 이스라엘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준엄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성직의 임무를 맡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더럽혔습니다. 저들의 죄는 그만큼 깊어졌고, 그 일로 인해 심히 경고를 받았습니다(1~9절). 다음으로 혼인 규례를 어긴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어려서 취한 아내를 확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아내를 부당하게 대하며 내쫓아 버렸습니다(10~16절). 이들이 이렇게 행한 것은 17절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처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며 하나님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했습니다. 그들 중심에는 자기 자신만이 가득차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나’ 중심의 마음으로 가득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고백하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서 다스리시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말 2:16)

기도제목

① 내가 아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되게 하소서. ② 위임 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통로로 사 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주 예수를 믿으라

충현교회 교인이라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제 자신도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내가 죄인인 것을 다시금 깨닫곤 했습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지. 내가 죄인인 것 모르지 않아.”라며 그저 앵무새처럼 입으로만 말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내 모습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마음 속 깊이 새기게 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었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서는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언니가 충현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1년 전의 일입니다. 간곡한 부탁으로 언니는 마지 못해 교회에 몇 번 나왔지만 집 근처 교회에 다니겠다고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몇 해 전부터 집 근처 교회에 다니시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통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접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가족 그 누구의 마음도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5월, 언니는 말기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시도했지만 너무 늦게 발견하여 수술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조금해졌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기에 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 간절히 예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던 언니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마음이 열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

들었습니다. 언니의 마지막 시간은 참으로 힘들고 복잡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언니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남편에게서 “빨리 죽어라!”는 소리까지 들으며 마음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몸의 통증도 점점 더 심해져 자신의 몸조차 가눌 수 없었고,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예수님은 언니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여 병상에서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세밀하게 간섭하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나 자신조차 언니의 죽음 앞에 사람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이며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보며 형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했지만, 주님의 흘리신 보혈은 그 상처와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너무나 슬프고 아팠지만 이 일을 통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마음을 열지 않으셨던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아오고 계십니다. 언니의 죽음을 통해 주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신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한 없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에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며 주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을 언니를 생각하며, 이제는 불쌍한 마음으로 형부를 위해 기도하며 전도해야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김신애(집사, 15교구)

2009년 10월 11일 주간총현

이방 여인과의 결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에 대한 불신에 이어 또 다른 백성의 죄악이 지적됩니다.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 즉, 하나님의 규례를 거스르고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형통하지 못한 원인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십일조와 헌물을 바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전혀 인식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그들에게 저주가 내릴 것이라 말씀하시며 이어서 돌이켜 순종하면 다시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7~12절).

하나님께서서는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돌아오라는 말은 회개를 뜻하는 것으로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창 3:9)라고 물으신 이래 타락한 인간에게 거듭 되풀이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순종을 통해 회복되고 그 결과로 형통케 됨으로써 그분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이유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부르심에 감격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은총의 삶을 통해 세상에 복된 소식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말 3:7)

기도제목

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②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말라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선지서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구약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던 선지자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와 심판 날에 임할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날의 심판이 이르면 악인은 철저한 파멸을 당할 것이고 의인에 대해서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2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날은 악인들에게는 두려움과 파멸의 날이 될 것이나 의인에게는 해방과 자유의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의인은 그 날에 구원받고 자신들의 원수들을 멸망시키게 될 것입니다(3절). 이어서 선지자는 ‘엘리아’의 출현과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약속된 엘리아는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할 것입니다. 즉, 엘리아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아는 우리들이 주의 재림을 알리는 엘리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하고 주를 그리스도로 맞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회개의 권고를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심판이 미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이 말라기서가 ‘저주’라는 말로 끝난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로 치신다고 합니다. 철저한 회개만이 그 날을 준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 참된 회개에 이르는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아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말 4:5)

기도제목

① 철저한 회개로 그 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하나님이

창세기 1장 · 찬송가 68장

천지를 창조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선언이야말로 신 · 구약을 여는 열쇠이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분명히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1절). 성경 첫 권 첫 장 첫 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조하다’라는 말씀은 완전하고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창조 역사입니다. 인간을 비롯한 천지 만물이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의하여, 완전한 무에서 완전한 유로 창조되었음을 뜻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과 만물에게 빛과 생명을 허락하셨음을 나타내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속 사역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깨닫게 합니다.

성경 첫 부분에 나타나는 천지 창조는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존이며 분명한 사실이며 현실입니다. 우리는 천지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창조의 섭리와 모든 피조물의 주인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요 1:4).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며, 이 빛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요 1:14).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으며(2절),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요 1:1~2). 삼위일체 되신 성부 · 성자 ·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을 믿을 때 십자가 복음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총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

기도제목

- ① 천지를 지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소서.
-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신 것을 끝으로 6일 간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제 7일에 평안히 안식하셨습니다(1~2절). 여기서 '안식하다'라는 말은 '조용히 있다' 혹은 '평안히 쉬다'라는 의미로 곧 모든 일을 마치고 기쁨과 만족 가운데서 휴식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어 하나님께서는 그 날에, 창조된 피조물들을 인준하시고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3절). 우리는 인간 창조에 대한 본문(4~7절)의 말씀을 보면서 본래 인간이 흠(진흙이 아니고 땅의 티끌이나 먼지를 가리킴)으로 지음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생기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은 절대자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8~17절은 최고의 아름다움과 최상의 복된 상태를 갖춘 에덴동산에서 인간이 거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18~25절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역에 의하여 이루어진 최초의 결혼 장면입니다. 범죄 이전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거룩한 존재로써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는 복된 상태였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세상을 기뻐하고 즐기며 추구하던 것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근본 됴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하게 지음 받은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일에 자기를 부인하며 순종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은총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창 2:3)

기도제목

① 설자기의 은총을 의지하여 미련함을 버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② 당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중심으로 주님의 교회(마 16:18)를 세우는 데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아담으로 인한 인류의 타락과 그에 따른 절망이 나오지만, 소망을 주는 인간의 구속 사역을 예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순종 즉,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범죄하는 장면(1~6절)과 그로 인한 죄의식(7~10절),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11~21절), 낙원에서의 추방(22~2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9절)”는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찾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깨닫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심정이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경솔히 여기며, 교만과 탐심의 마음을 가지는 데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특히 자신과 이웃과 가정과 주변 환경을 파괴시키는 치명성을 지닌 인간의 범죄는 생명과 평안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뼈아픈 상처를 안겨 주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희망이나 가능성이란 결단코 없습니다. 오로지 고통과 절망과 불화와 죽음 뿐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바로 이 같은 절망의 상태에 놓인 인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짐승의 피를 흘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써(21절),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실(15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예시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창 3:15)

기도제목

① 나의 중심이 나에게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만 있게 하소서. ②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걸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에 이어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인류역사의 반복된 악순환이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죄의 중압감에 시달릴 뿐 아니라 인간을 두려워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13~14절). 이 장은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인간의 비극적인 삶과 이 범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1~15절). 뒤이어 가인의 후예들의 변성과 그들이 만들어낸 불경건한 인간 문명을 소개합니다(16~24절).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암울한 인류의 역사 중에서도 거룩한 씨를 통해 인간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조용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묘한 손길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25~26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은 항상 증오와 불안을 간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교만하여 하나님 없는 문화,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세상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이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절망과 죽음뿐입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인간의 역사가 절망으로 어그러져 간다 해도 그 역사의 주도권은 여전히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9~10절), 당신의 뜻을 좇는 거룩한 씨를 세상 가운데 남겨 두십니다(25~26절).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강권적으로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의 길, 좁은 길, 십자가 복음 증언하는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창 4:26)

기도제목

① 교만을 쌓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각하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가인의 후손(창 4:16~24)과 대조적으로 5장에서는 아담의 계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구속주로 오실 메시아의 계보와 연결되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해 죽어야 했습니다. 영원히 멸망 받아 저주 속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은혜를 나타내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손이 계속 이어져 하나님의 자녀들이 면면히 맥을 이어 나갑니다. 이처럼 인간의 어리석음과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비를 나타내십니다. 비록 아담은 불순종으로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타락한 인류가 타락의 문화와 무신론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들을 보존하십니다(창 4장).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창 5장).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길을 가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약속의 백성들을 번성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뱀의 머리를 부수고 승리하신 여자의 후손(창 3:15),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담의 후손 중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24절). 이처럼 이들은 확장되어가는 악의 세력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믿음을 지켰습니다(창 4:26). 우리도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믿음을 지켜 우리의 이름도 아담의 계보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창 5:24)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②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양로원 · 함양충헌농원과 공사 중인 사랑관(충헌기도원) 및 준공된 자연장(납골시설)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2)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전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위해 살았고 교만하였으며 자기 부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도 별로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믿는 분들과 만나며 예배에도 참석하였지만 여전히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막연하기만 하였고 예수님은 그저 내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 주시고 또 내가 믿으니 나를 도와 주셔야 하는 분으로만 생각하였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한 필요와 자기를 실현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분이었습니다.

이런 나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위임목사님을 통하여 주일예배와 금요찬양집회에서 듣는 복음은 나에게 전혀 다른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위해 살았던 나를 영원한 세계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살도록 하였습니다. '재물과 권력과 육신의 정'

욕을 위해 산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우리가 마땅히 영원한 천국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믿자 십자가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대속하신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토록 부를 나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뒤늦은 깨달음에 대한 회개와 함께 대속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자녀들은 혹시라도 나이 많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될까봐 염려하지만 칠순의 나이에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난 지금, 교회주변전도와 단기 선교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더 만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충현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의 사랑과 구속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참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쉬지 않고 전파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안노수(은퇴안수집사, 10교구)

2009년 1월 25일 주간충현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정작 구원의 길이 하나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 강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뿐임을 계속해서 보여 주고 있으며 홍수 사건은 그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유일한 구원의 길은 방주 하나뿐이었고 그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 가족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18절). 방주에 들어가지 않아도 살 길이 있다고 믿었던 많은 사람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음이 이를 증명해 줍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길이 오직 하나뿐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호와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골 2:32), 하나님을 떠나 각기 제 길로 갈 때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사 53:5~6).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유일한 방편 즉, 그 통로를 단 하나로 정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행 4:12). 노아의 방주에 있는 단 하나의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자신을 가리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요 10: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만민이 다 죄로 신음하며 구원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알고 구원의 방주되시는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창 6:9)

기도제목

①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단 하나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소서. ② 충현의 모든 성도가 자기를 부인(마 16:24)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걷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방주에 있던 자들만

창세기 7장 · 찬송가 515장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 하늘의 물이 쏟아졌습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죄와 함께 그 물 속에 잠기게 되었습니다(19절). 그렇다면 인생을 덮어버린 이 물은 어떤 물입니까? 지구를 덮어버린 홍수의 물은 심판의 물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물 아래 잠겨버렸습니다. 그 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이 열려 사십 주야로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11~12절).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영혼을 뒤덮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물에 잠겼을 때 오직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방주 안으로 피신한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홍수 가운데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들은 물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심판의 손길이 노아에게는 오히려 은혜의 체험이었습니다.

우리는 방주 바깥의 물과 죽음과 심판을 두려운 심정으로 보는 가운데, 방주 안의 생명과 안전과 구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23절). 노아의 홍수는 마지막 때를 위한 경고의 사건입니다(마 24:37~39).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지어진 노아의 방주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실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마치 홍수 전에 노아가 외친 것처럼 문을 활짝 열어 놓고 누구든지 들어와 구원 얻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 3:2).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기 전에 외치는 구원의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창 7:16)

기도제목

- 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함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소서.
-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니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억하다(1절)'는 '새기다'와 같은 의미로(창 9:15 ; 욥 14:13) 평상시에는 잊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 속 깊이 새기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느 5:19 ; 시 25:7). 이는 하나님께서 홍수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방주 안의 생명들을 늘 잊지 않으시고 보호하셨다는 뜻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휘몰아치는 바람과 계속되는 비, 때로는 풍랑 속에 이리저리 뒤집혀질 듯이 흔들리는 방주 안에서 40일을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계속되는 동안 노아와 모든 육축을 기억하시며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방주는 심판의 거센 물결에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는 일에 소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지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늘 기억하시며 그들의 형편에 따라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잊어버리시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항상 기억하시고 사랑하십니다(사 49:15~16).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창 8:20)

기도제목

① 사랑 받을 자격 없는 자를 향한 주의 지극한 사랑하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출현의 재단(유지 · 동산 · 복지)들을 복음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성도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먼저, 성도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겻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36절)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곳에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 자리에서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실패를 맛 보아야 했습니다. 성도는 늘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는 고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해야 합니다(로 8:17).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축복과 은총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면서도 주를 위한 고난과 희생은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여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송과 영광을 받을 때에는 잘 따르다가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에는 배신자가 된 것과 같습니다. 진실한 성도는 고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복음 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주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명령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마 26:36)

기도제목

① 기도와 고난과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게 하소서. ② 교구와 부서를 섬기는 교역자들이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교회(마 16:18)를 섬기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하여 자기의 새 무덤에 안장하였습니다. 그는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온갖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에는 허다한 무리들이 따라 다녔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을 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망을 하거나 예수님을 정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진실한 성도인지 아닌지는 고난과 핍박이 몰려왔을 때에 확연히 드러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부자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요, 아주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막 15:43). 그러나 그는 십자가 위에 있던 시체를 부끄러워하거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빌라도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결단있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반역자로 몰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를 인수하려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자신도 반역자로 몰려 죽을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입술로만 주를 고백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온 몸을 드려 실천하는 진실한 믿음이 있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마 27:57)

기도제목

① 입술로만 주를 고백하는 자가 아닌 진실한 믿음이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1·1·1)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딤후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 찬송가 560장

예수님께서서는 승천하시기에 앞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19~20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과 같이 전 생애를 바치는 일념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까요? 먼저,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먼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소극적인 마음, 게으른 마음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소극적이고 게으른 태도로는 절대로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에 대한 염려와 근심, 신앙의 나태와 게으름, 온갖 소극적인 생각을 떨쳐 버리고 일어서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가되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전도 목적은 천하고 가까운 몇몇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부복하고 주님을 섬기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몇몇 사람을 전도한 사실로 자기만족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울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라고 하시면서 “세상 끝 날까지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곧 모든 전도자들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같이 지키시고 도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딤후 1:12). 이 말씀을 붙들고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마 28:19)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2010년 제3차 청지기훈련(10월 22일 금요일 7시에 모든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여 참석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지녀야 할 자세는 어떠한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외쳤습니다. 그의 외침은 부패와 타락으로 향하던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눅 3:7~14), 그들로 하여금 메시아의 강림을 대비케 했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은 타인의 비난이나 조롱에 말씀 전하는 일을 쉽게 포기하지 말고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소박하고 정결한 삶으로 호화스러운 옷 대신에 약대 털옷을 입었고, 기름진 음식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의 주식인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생활했습니다(6절). 또 거친 유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도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자신의 만족을 위하는 일에만 열심이지는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뒤에 오시는 이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7절)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높임 받는 위치에 있던 세례 요한이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배운 자만이 겸손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마 11:29). 말씀을 전하는 자가 지녀야 할 자세는 바로 정결과 겸손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했듯이 정결과 겸손으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막 1:7)

기도제목

① 진리를 깨달아 거짓된 것들에 미혹되지 않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마태복음 6:13)

1

●●● 이 기도가 제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로, 주의 깊게 경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마귀의 공격 때문이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벧전 5:8). 시험은 몰래 숨어서 들어오는 암살자와 같다(눅 22:31). 기도는 죄에 빠질까 하는 두려움에서 오는 거룩한 공포다.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아는 자들은 기도한다(고후 12:8~9).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자신의 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시험해 보려고 하지 않고 기도한다(고후 11:29~30). 둘째로 이 기도가 제시하는 것은 자비이다. 이 기도는 우리 안에 자비의 심정이 있을 때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다 지난 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자비를 호소할 수 있다(마 7:21).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이길 힘까지도 제공해 주신다(고전 10:13).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의 두려움, 연약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자(마 14:28~31).

2

●●● 어떠한 시험을 말하는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는 나의 인내, 신앙, 신념, 나를 죄에 빠지게 끌고 가는 것들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는 기도이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옮겨 가실 때 시험에 빠질 수 있다(삿 16:17,20). 하나님의 강한 능력 안에서만 우리도 강해질 수 있다(요 16:13 ; 잠 30:8~9). 때로는 심한 시련을 통하여 믿음이 강한 자의 위치에 놓여진다. 시험이 오는 것은 분명히 우리를 위한 것이다(약 1:2~3). 하나님의 자녀 양육 시스템 속에는 시험이 포함되어 있다(창 22:1~2,16~18). 하나님

은 확고한 믿음의 자발적인 충성을 원하시며 그분의 부르심이 있는 자에게 희생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다(욥 2:5~6). 시험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시험을 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마 26:39). 우리의 약함이 곧 강함이 되고, 우리의 강함이 약함이 된다(고후 8:9). 시련 속으로 인도하셨다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성령께서 주실 것이다(고후 12:10).

3

● ●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시련을 원하지 말아야 하며 시험을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 스스로를 시험에 들도록 내어준 죄가 기억난다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을 받자. “아버지여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2010년 제2차 청지기훈련 메세지



중풍병자는 자신의 믿음뿐 아니라 네 친구의 도움을 받아 병 고침과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5절)라는 표현은 이를 뚜렷이 나타내 줍니다. 따라서 본문의 주인공은 병 고침 받은 중풍병자 뿐만이 아니라 그의 친구들 모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지녔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먼저,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네 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서 계신 집에 이르렀을 때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들은 문 앞에도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환자를 메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고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 내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오직 예수’의 믿음이었습니다. 왜 이 네 사람은 힘들여 친구의 침상을 메어오고 또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수도 있는 지붕을 뜯어내는 일까지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중풍병자가 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것밖에 없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는 분명히 낫게 해 주실 능력과 사랑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愿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으니라 하시니”(막 2:5)

기도제목

①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학생들에게 십자가 복음만을 확신있게 전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란 어떤 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먼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요 15:16).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라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란, 주님과 함께 하는 자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14절). 얼마나 주님과 함께 합니까? 입으로는 주님의 참된 제자라고 하지만 고난이 닥치면 주님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직 주님과 함께 하는 자가 주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주님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일에만 신경을 쓰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들은 모두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주님을 대신하여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이 사명은 우리에게도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입니다(벧전 2:9). 즉,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란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과 동거하며 주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에 열들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막 3:14)

기도제목

① 예수님과 함께하며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의 일을 하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바다 결 육지에 있는 부리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신 후,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그 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35절). 그런데 이 항해 길에 광풍이 닥쳤고 배는 거의 파선 직전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물결이 일어나 배가 이미 물로 가득 차 있는 이 때에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로서는 절규하며 예수님을 깨우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예수님의 주무심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평강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깨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사명의 길에 닥치는 어려움과 고난이 아무리 험하다 해도 그것은 끝이 있고 완성이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주도하셔서 가자고 하신 길이며, 그 사명의 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40절)라는 예수님의 물음이 사명의 길을 가는 우리의 가슴에 메아리처럼 끝없는 경종으로 남게 됩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 예수님, 그분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배를 타고 계신, 선장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저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막 4:41)

기도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① 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며 두려워 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②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실전 4:13~18)하며 매순간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소서.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리고

마가복음 5장 · 찬송가 472장

20
수요일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심은 무덤 사이에 거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거라사인 지방에 가는 길은 힘들고 험한 길이었으나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만나야 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동네에서 쫓겨나 밤낮으로 무덤 사이와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자기 몸을 돌로 해치고 있는 버려진 자였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그는 이제는 쇠사슬로도 맬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를 괴롭히던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7절) 라고 간구합니다.

우리는 버려진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쇠사슬이 쇠사슬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늘 소리를 지르고 있는 불쌍한 자입니다.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리던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돌로 그의 몸을 해치며 그를 제어할 힘이 없어 그의 주변에 아무도 다가가지 못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우리는 나음을 얻을 수 없는 귀신 들린 자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능력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우리 또한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고쳐주실 것입니다. 나음을 받은 후 “알리라”(19절)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큰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한 귀신 들렸던 자와 같은 간증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막 5:19)

기도제목

① 버려진 자를 찾아 오셔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를 찬양하며 전하게 하소서. ② 장로 · 안수집사 · 권사로 임직되는 일꾼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제자들의 전도 파송(7절)과 전도 보고(30절) 사이에는 '세례 요한의 수난' (14~29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열두 제자가 파송되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즉, 그들이 선교하는 동안 세례 요한의 수난 기사를 기술함으로써 복음 전파의 중심 내용이 '죽음과 부활' 임을 암시해 줄 뿐 아니라, 복음 전파의 삶이란 '수난의 삶'임을 말해 줍니다. 이는 수난이 이 죄 많은 세대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삶을 잘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의 수난은 다가올 예수님의 수난의 그림자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헤롯은 진리에 대해 달게 듣고 근심했지만, 자신의 체면과 명성에 급급해 결국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하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진리를 따랐습니다.

복음을 위해, 의를 위해, 주님을 위해 홀로 서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복음으로 인해 시련이 찾아올 때, 헤롯처럼 어느 정도 심히 근심하나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욕심으로 인해 진리를 부인하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고난을 맞이합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은 결코 그가 실패한 전도자였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친' 사명의 완성자였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영혼을 구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막 6:12)

기도제목

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명의 삶이 되게 하소서. ② 2010년 제3차 청지기훈련(10월 22일 금요일 7시)에 모든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며 참석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더러운 귀신에 의해 고통당하는 어린 딸이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25절).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 앞에 나아와 엎드리어 딸의 구원 즉,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특히 “곧 와서”라는 표현과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 간구”한다는 표현은 귀신 들린 어린 딸의 상태의 심각함과 그 딸을 고치려는 어머니의 간절한 열망을 잘 묘사해 줍니다. 그녀의 행동은 즉각적인 행동이었을 뿐 아니라 필사적이고 겸손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겸손하고 간절한 이 여인의 간구에 대한 예수님의 일차적인 반응은 모욕적인 거절이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모욕적인 대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유의 의미를 이해하고 지혜롭게 응답했습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28절). 여인의 대답은 하나님의 돌봄에 대한 이스라엘의 우선권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자비와 놀라운 능력에 호소하면서 부스러기라도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녀의 신분이나 유대인과의 갈등을 고려한다면 이는 매우 특이한 반응입니다. 그녀는 딸의 치유를 위해서 이러한 모멸과 거절의 벽을 넘어서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끈질긴 간구는 응답을 받았고, 그 간구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섬기고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전부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막 7:29)

기도제목

①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닌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제3차 청지기훈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인 헤르몬산 아래에 자리 잡은 도시로, 헬라시대의 판(Pan) 신전이 있을 뿐 아니라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 해롯이 건축한 거대한 신전들이 세워져 있던 곳입니다. 이 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인가를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27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29절). 이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자신의 고난에 관한 예언의 말씀(31절)을 들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사역을 오히려 반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엄히 책망하십니다.

우리고 이와 같은 태도와 행동을 취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34절). 메시아의 길과 제자의 길은 동일한 삶의 원리 위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메시아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이제 그분을 따르는 제자 또한 고난을 통해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고난 없는 생명은 없고,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면 그분을 따르는 제자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막 8:34)

기도제목

- ① 예수님을 따라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을 감사하게 하소서.
- ②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시험을 넘어 승리의 확신을 얻기까지

청지기훈련이 정해진 때부터 저에겐 시험의 속삭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대예배만 드리는 신앙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남편을 훈련에 참석시키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혼잡한 금요일 퇴근 시간의 강남대로를 평상시의 3배 이상 시간을 소요하며 교회까지 도착하여 어렵게 주차하기까지 흘러나올 불평의 말들을 잠재우기 위해 가슴 졸여야 하는 상황을 포기하라는 속삭임이었습니다. '출장 다녀와 피곤한 남편 꼭 쉬라 하고 나만 혼자 참석해야 온전하게 은혜 받고 올 수 있을텐데. 갔다 와서 남편한테 잘 해 주면 되지 뭐, 그냥 편안하게 내 신앙만 지키자!' 라고, 그러나 그 속삭임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예배의 자리에서 남편을 만나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 순간 내가 통과해야 할 시험임을 성령께서 곧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청지기훈련 당일, 피곤하다는 이유로 1시간만 참석하겠다는 남편의 말이 끝까지 시험에서 완전히 놓이지 못한 듯한 감정을 느끼게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남편과 함께 한 청지기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온전히 참여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에 1초도 놓치고 싶지 않은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연약함으로, 때로는 세상을 더 사랑함으로, 시험 당할지라도 기도의 무릎을 꿇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피할 길을 주어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신다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옆에 앉은 남편을 보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비록 1시간만의 반쪽 훈련이었지만 오늘의 청지기훈련을 통해서 나 혼자의 편리한 이기적 신앙을 추구하기 보다는,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남편과 같은 신앙의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 하는,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천천히 천국 문을 향해 같이 가는 이 인생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끊임없는 기도가 구원의 승리를 가져온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김혜란(집사, 3교구)

2010년 7월 11일 주간총회

예수님은 지금 고난과 죽음을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르는 제자들은 지금 “누가 크냐”며 쟁론하고 있습니다(34절).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는 제자들이 어떻게 이 길에서 이와 같은 논쟁을 할 수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의 비극이며 현재 교회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이 논쟁은 제자들이 맨 처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어떤 의도와 동기에서 시작된 것인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좋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면 그들은 여전히 세속적인 사람들이며, 그 길은 주님의 제자가 걸어갈 길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가장 큰 원수는 내 속에 숨어 있는 무서운 죄라고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사실 이 ‘길’에서 ‘금해야 할 것’은 어린 아이나 우리와 방법이 다른 형제들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유약한 사람,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따뜻하게 영접해야 할 대상입니다. 주님은 문제의 근원이 되는,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에 대해 엄격하고 급진적인 수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뺨버리라”라고 하십니다(43~47절).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대처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죄를 회개함으로, 주의 보혈을 경험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막 9:43)

기도제목

① 구별된 자로 살며 예수께서 걸으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 걷게 하소서. ②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는 제5차 학습세례식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한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고 질문했습니다(17절). 우리는 이 모습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그의 사모함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만큼 컸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계명에 대해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라고 자부할 만큼 매우 경건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아마도 이 청년은 단순히 계명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고민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만족이나 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재산을 다 팔아가난 자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나서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의 태도가 달라진 이유는 재물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막 4:3~20)에서 말씀하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와 유사합니다. 그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입니다. 신앙이란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포기할 수 있다는 의지요 결단입니다. 신앙은 문자적으로 계명을 실천하는 엄숙한 삶을 넘어서, 하늘의 보화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막 10:27)

기도제목

- ①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소서.
-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예루살렘 입성을 기록한 이 장의 두 가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과 ‘성전 정화’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스가랴 9:9의 성취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음을 암시합니다. 또한 나귀 새끼 위에다 겹옷을 엮고, 겹옷을 길 위에 펼쳐 놓은 행위는 구약의 이스라엘 왕의 즉위식과 관련해 예수님이 왕임을 암시합니다. 무화과나무가 뿌리까지 마른 것은 타락한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할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줍니다. 또한 예수님은 구약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성전은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강도의 소굴”로 타락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17절).

무리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들은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또한 완악한 마음을 가진 종교지도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자신들을 비판하는 예수님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정치, 경제를 도우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것들을 얻게 해 주시려고 오신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오직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셨지만 겸손히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입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그분이 어디로 가시는지 따라가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목적지가 부와 명예, 인기, 권력과는 전혀 다른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임을 깨닫게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막 11:10)

기도제목

① 내가 만들어 낸 메시아가 아닌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을(고전 15:3-4)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 건함을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건축자들이 버린 돌

마가복음 12장 · 찬송가 84장

27

수요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은 시편 118:22~23의 인용입니다. 이는 메시아를 나타내는 구절로 베드로나(행 4:11 ; 벰전 2:7) 바울도(엡 2:20) 이 구절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유대인의 배척과 이방인의 환영을 밝혔습니다. 건축가들 즉, 유대의 지도자들이 ‘돌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 버려진 돌은 천대받거나 잊혀진 존재가 되지 않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주님은 유대의 모든 지도자들과 추종자들에게 거부당하여(마 27:22~23 ; 막 15:13 ; 눅 23:21) 십자가의 형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버린 자는 유대인, 얻은 자는 이방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인이 무시하고 거역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리스도가 이방인에게는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시각에서는 무가치한 존재였으나, 예수님 스스로는 산 돌로 많은 생명을 구하시고(벰전 2:4), 동시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큰 심판을 예비하셨습니다(벰전 2:7~8). 이미 심판을 받아 멸망한 자들도 많습니다(마 21:44).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은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춧돌이자 머릿돌로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또한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막 12:10)

기도제목

①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머릿돌로 모시게 하소서. ②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는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보장받는 복되고 기쁜 일입니다(마 5:11~12). 주님이 말세에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고난 당하고 미움을 받으리라 고 한 말씀은 '참 제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수욕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르는 참 제자들을 미워합니까? 이는 근본적으로 세상의 풍조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까닭이요(요 15:18), 그리스도의 참 제자와 성도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요 15:19). 말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당하리라'고 하셨는데, 이는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거짓 성도, 거짓 교회로부터까지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인본주의적 철학 사상에 오염된 교회, 물질주의에 오염된 교회들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구세주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참 교회와 성도들을 오히려 업신여기고 이단시하게 될 때가 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라는 이름을 성경과 사도들이 증언하는 대로 '죄에서 구원할 자'(마 1:21)라는 의미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구시대적 보수주의자'로 깔보고 업신여기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그 미움을 이기는 방법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개인주의 풍조에 무릎 꿇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전해 주신 십자가 복음의 진리 안에 굳게 서서 그 진리가 이루어짐을 확신하며 충성해야 합니다(계 2:10).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막 13:13)

기도제목

① 진리 안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미움을 견디어 내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1·1·1)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딤후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그리스도의 순종의 기도

마가복음 14장 · 찬송가 549장

29
금요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아를 대망한다는 유대 종교지도자들에게 배척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엄청난 고통을 앞에 두고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고난의 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감내해야 할 고통이 너무 컸습니다. 주님의 소원은 아버지의 뜻과 자신의 뜻을 일치시키려는 강한 결단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주님 자신은 피하고 싶었던 잔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이 바라는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맞추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자신을 순복시켜야 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바람과 뜻을 포기한 것은 절망이나 좌절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은 새로운 생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의 뜻을 포기한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중간적인 태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함에는 때로는 죽음의 결단도 필요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겸손하게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고 철저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막 14:36)

기도제목

① 아직까지 놓지 못하는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천양대(눅 2:36)를 통하여 금요천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예루살렘 성에서 골고다까지 이르는 길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로마 병정들의 채찍과 가시 면류관, 심한 조롱 등으로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예수께 그 길은 결코 가까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관례는 죄인을 끌고 가는 길은 최단의 거리가 아닌 최장의 거리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보다 많은 사람에게 좀더 많은 시간 동안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비아 돌로로사' 즉 '슬픔에 찬 길'이라고 부릅니다. 이 길은 주님께서 인류의 구속을 위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었습니다.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바이란 영문 밖으로(레 16:27), 이 곳은 유대인의 허물과 죄를 처리함으로써 유대인들을 거룩케 하는 곳을 상징합니다(히 13:12). 골고다는 주님이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린 장소요, 인류를 대신해 하나님께 죄의 형벌을 당하신 장소입니다. 이 골고다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골고다는 '해골의 곳'이 아니라 '생명의 곳'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히 13:13)라고 촉구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모든 자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골 1:24)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영광 받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해야 합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막 15:22)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에 두려운 고난이 아닌 기쁨의 고난이 되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종교개혁과 성경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아우구스티누스회의 수도사이자 신학교수인 루터가 '면죄부(免罪符)에 관한 95개조 논제'의 항의문을 비텐베르크대학의 성(城)교회 정문에 게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 항의문은 마인츠의 대주교(大主教) 교회의 알브레히트가 재정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팔았던 면죄부의 잘못된 점을 문제 삼은 것이었다. 이것이 루터 자신의 예상을 넘어 유럽 전역에 파급되는 개혁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종교개혁으로 인해 교회의 예배의식이 크게 바뀌었다. 성직자 중심의 예배로부터 예배자 모두가 참여하는 예배로, '의전(儀典) 중심'의 예배로부터 '말씀 중심'의 예배로 변했다. 중세 카톨릭교회의 예배는 성직자 중심의 예배였다. 예배는 라틴어로 진행됐다. 성직자 외에는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진행된 예배에서 회중은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교회에서 성경은 성직자만이 읽을 수 있는 책이었고 성만찬에서 일반 신도들은 떡만 받고 포도주 잔은 받을 수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뜻하는 포도주를 실수로 흘려서는 안 된다는 이유였지만 여기에는 사제들의 특권의식이 깔려 있었다.

루터는 이러한 모든 관행을 폐지했다. 예배는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진행하게 됐다. 이로 인해 예배자들의 오랫동안 막혔던 귀가 열렸다. 성만찬에서 모든 예배자는 떡과 잔을 받게 됐다. 모든 예배자가 한 목소리로 찬양했다. 모두 참여자가 되어 예배는 활기가 넘쳤고, 교회에는 신선한 새 바람이 불게 됐다. 뿐만 아니라 루터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를 예배의 중심에 놓았다. 따라서 당시까지 틀에 짜인 정형화된 '의전 중심'의 예배로부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중심'의 예배로 바뀌게 되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누리는 가장 큰 은혜이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무덤의 돌문은 이미 열려있었고,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은 거의 죽은 자처럼 떨며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찾아온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주님의 시신이 거기에 있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녀들은 놀라고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때 천사가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막 16:6). 나사렛이 고향인 예수는 부활하셨고 천사는 이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비로소 ‘주님의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열려져 있는 돌무덤은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무덤은 더 이상 무덤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주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곳은 곧 ‘부활’을 입증하는 역사적 현장이었습니다.

‘열려진 무덤,’ 이 때부터 모든 무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권능을 잃었습니다. 이제 무덤은 하늘을 향하여 그 문을 열어 놓은 것이며, 무덤의 문은 더 이상 죽음의 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문이 되었습니다. ‘빈 무덤’은 모든 인간을 진리로 인도하는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이 영혼과 육체를 함께 구원하는 전인적 구원임을 증명하고, 인간의 생명을 사탄의 지배로부터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로 옮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승리이며 확증이고 모든 진리의 정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기도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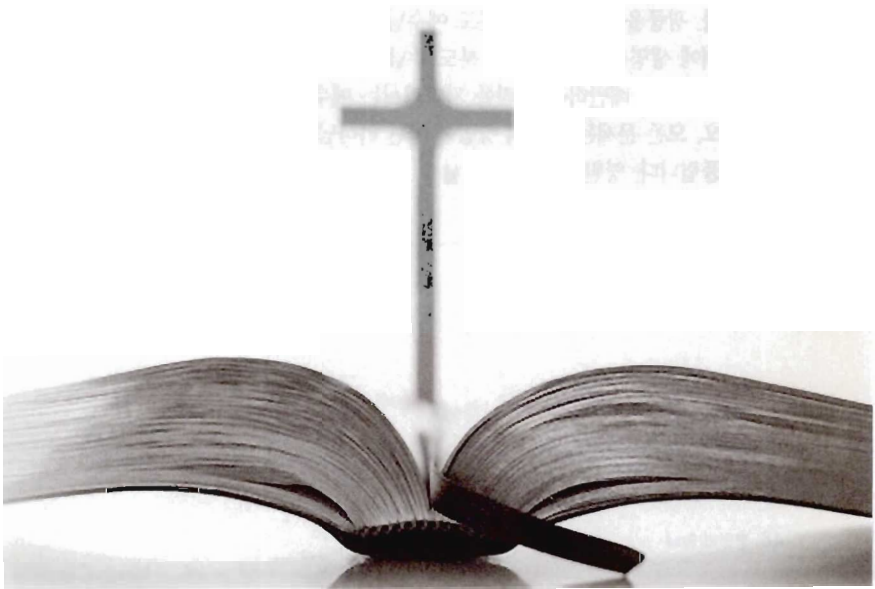
① 부활하신 구세주를 찬양하며 이 기쁜 소식을 만민에게 전하게 하소서. ②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종교개혁주일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구역예배

10월 구역교재 초점

‘예수 그리스도’가
대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답이다!

포로가 된 다니엘의 현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조국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슬픔에 다니엘은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폭풍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친 파도와 몸을 가눌 수 없는 바람으로 제자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도 만만치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사람들과 환경들 때문입니다. 아니, 더 큰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답이십니다. 다니엘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다니엘이 아니라 주님이셨습니다. 광풍을 잔잔케 하신 분도 예수님이셨으며, 골짜기의 마른 뼈에 생명을 불어 넣으신 분도 주님이셨습니다. 매번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모든 문제는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 풀립니다. 영원의 문제까지. 

10월 1일 다니엘 1:8~16
포로 다니엘 Captive Daniel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

10월 8일 마가복음 4:35~41
그는 누구인가? Who is This?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라

10월 15일 에스겔 37:1~14
마른 뼈들의 골짜기 The Valley of Dry Bones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라

10월 22일 누가복음 22:60~62
제자 베드로 Disciple Peter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와 회개하라

10월 29일 신명기 30:11~15
하나님의 주권 God's Sovereignty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라



●● 구역예배 순서

찬 송		다같이
기 도		담당자
구역교재		인도자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 구역교재 전개

도 입

민 음으로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0분

전 개

말 씬으로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소요시간 25분

결론 및 적용

십 자가로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5분

2010년 10월 1일

1 과

포로 다니엘

| 초점 |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

| 찬송 |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 본문 | 다니엘 1:8~16

⁸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⁹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 ¹⁵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¹⁶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다니엘서는 믿음으로 가득 찬 놀라운 모험과 미래에 대한 예언을 담은 말씀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의미로, 그는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동안 정부 관료로서 또한 참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책을 기록하였습니다.

※ 다니엘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오늘의 성경 본문은 다니엘의 결심을 보여 줍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단 1:8). 왜 다니엘은 이런 자연스런 이치를 거스르는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은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남들보다 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자신이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자신의 선택이 아님을 알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분의 은밀한 일을 보이셨습니다! 이유가 무엇 일까요?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정결한 마음

다니엘은 정결한 마음을 지켰습니다.

단 1:8

다니엘(벨드사살)은 주님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지킬 것을 결심했고 이것은 그의 친구였던 하나냐(사드락), 미사엘(메삭), 아사랴(아벳느고)에게도 영향을 주어 그들 역시 같은 결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그의 뜻에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주님의 은밀한 일은 그 무엇보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시 25:14

시 51:10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 세상의 길을 거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인생 이야기를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로 간주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역시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 세상의 길을 거부하고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경험을 나누어 보십시오.

흔들림 없는 삶

다니엘은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단 1:8~10

시험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다니엘은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자신의 믿음을 공손히 설명했습니다. 그의 일관된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심지어 환관장의 마음까지 움직여 그의 뜻에 따르게 했습니다. 다니엘의 용기와 믿음은 환관장의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다니엘은 감독관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데 흔들림 없는 삶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절함으로 좁은 길, 힘든 길, 인기 없는 길을 택했습니다. 요셉 역시 시종일관된 삶을 살았고 주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 할 것입니다.

창 39:21 /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를 받게 하시매

온전한 믿음

다니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단 1:12~13

다니엘은 채식을 먹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세상의 좋은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시험에서 자신이 이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믿음의 시험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섬김을 증거합니다.

히 10:22

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시험의 결과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혈색이 다른 이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으로써 나타났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신실한 네 소년에게 학문을 익히는 탁월한 재능을 주셨습니다(단 1:17~20). 주님에 대한 순종이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분의 비밀을 배우게 됩니다. 슬픔과 스트레스, 실패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단 1:14~15

다니엘의 삶의 환경은 최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환경을 초월하여 오직 주님만을 믿었습니다. 정결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고 있습니까?

※ 찬송가 149장 가사를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갈 2:20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세상적인 성공과 물질을 얻는 비결이 아니라 그분의 비밀을 깨닫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밀한 일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다면 죄를 고백하고 울며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지혜를 주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둘러싸서 진 치고, 십자가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줄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 믿음의 기도 |

1. 정결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주소서.
2. 세상의 길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의 가정이 십자가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2010년 10월 8일

2과

그는 누구인가?

| 초점 |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라

| 찬송 |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 속에서

찬송가 371장 구주여 광풍이 불어

| 본문 | 마가복음 4:35~41

⁽³⁵⁾ 그 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
가자 하시니 ⁽³⁶⁾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
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 ⁽⁴⁰⁾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
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
냐 하시니 ⁽⁴¹⁾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
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하루 종일 배에 올라 앉아 물에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날 온종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인성을 지니신 주님은 육체적으로 완전히 지쳐 배가 출발하자마자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누워 곧히 잠드셨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바다를 건너는 도중에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막 4:37).

※ 광풍을 만난 제자들의 태도와 환난 속의 나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막 4:39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막 4:40). 하루 종일 무리들과 함께 말씀을 들었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이 누구신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막 4:41).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광풍이 일어났던 그 밤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왜 광풍이 일어났는가

그리스도인은 항상 고난을 당합니다.

롬 8:17 / 자녀이면 또한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을 받기 위하여 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처럼 제자들 역시 지치있었고 무리로부터 떨어져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날 시간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재빠르게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법 아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예수님께 순종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수치가 아닌 영광을 안겨 줍니다. 예수님 또한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폭풍을 당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역경의 시간들을 결코 피해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따르기만 한다면 그 역경들은 언제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히 4:15 _____

누가 그 광풍을 알았는가

예수님은 광풍에 대해 아십니다.

막 4:36~37

갈릴리 바다는 언덕과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계곡들이 바다로 이어지면서 바람의 터널 역할을 하게 되어 격심한 풍량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제자들 대부분이 어부였기에 갈릴리 바다에 그렇게 심한 풍량이 일어날 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출발을 늦추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일이 순조롭다고 생각하며 고요한 밤중에 출발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광풍은 예기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막 4:38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믿음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간섭하시기를 지체하고 계실 때 주님의 권능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요 11:14~15). 혼돈의 순간에 평안을 원한다면 오직 예수님만 완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 광풍이 일어날 것을 알았음에도 예수님이 바다로 나가신 이유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막 4:39~40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주님의 전능하신 권능을 보여 주신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감사하며 확신을 갖는 대신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고집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막 4:41 / 그들이 심히 _____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시 118:8~9

제자들은 광풍 후에 예수님에 대해 좀더 알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폭풍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요 1:14 _____

골 2:9~10 _____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의심합니다. 모든 의심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 믿음의 기도 |

1.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2. 매순간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2010년 10월 15일

3과

마른 뼈들의 골짜기

| 초점 |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라

| 찬송 |

찬송가 323장 부름 받아 나신 이 몸

찬송가 329장 주 날 불러 이르소서

| 본문 | 에스겔 37:1~14

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②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 ③ 내 백성들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④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사람들의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 곳은 시신들이 묻혔다기보다는 무더기로 내팽개쳐져 있는 끔찍한 곳이었습니다(겔 37:1~2).

※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하신 일은 무엇인가?
(겔 37:3~6)

에스겔은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에 순종하여 대언하였고 놀라운 환상을 보았습니다(겔 37:7~10). 에스겔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그분에 명령하신 대로 대언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낯선 상황에 두시며 말씀하십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소망을 준다

에스겔이 본 환상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은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겔 37:11

※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어떠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이 환상에서 볼 수 있는 삶의 법칙은 하나님을 청종하면 살고,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으면 끔찍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께서 오셨을 때조차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순종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 진리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신 28:1

신 28:15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된다

하나님은 고통 받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향해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마 11:28 _____

사 1:16~20 _____

만약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데려가셔서 그들에게 대언하라고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냐고 묻거나 아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른 뼈들을 향해 선포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인은 무엇인가?

마 16:24 _____

우리■ 만나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겔 37:12~14

에스겔은 의심 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을 행했고 그것은 실제로 역사했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불어 넣어진 생기는 미래에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 11:25~26

행 1:8

어느 곳에 가든지 그 곳을 영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들의 골짜기와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논쟁해야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바쁘고, 경험도 없고, 형편도 어려우며,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변명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른 뼈들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 지금 내가 나아갈 '마른 뼈들' 같은 것(곳)은 무엇인가?

요 19:30

우리는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주님은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어마어마한 군대가 소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그의 모든 축복과 함께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간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고후 6:2

빌 2:12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 믿음의 기도 |

1.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2.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3. 모든 구역원이 청지기훈련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게 하소서.

2010년 10월 22일

제자 베드로

| 초점 |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와 회개하라

| 찬송 |

찬송가 481장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 본문 | 누가복음 22:60~62

⑥①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
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⑥②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
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⑥③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3년이 넘게 동고동락하며 지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가족과 일터를 버렸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서 메시아 이심을 믿었기에 그분께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까지 했습니다.

※ 3년 간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평가해 보십시오.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부인과 배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 베드로는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를 것을 각오하였습니다(눅 22:15~33). 그러나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눅 22:34). 오늘 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날 이른 아침에 닭이 울 때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후에 위대한 사도가 되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부인하던 제자를 이처럼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바꿔놓은 걸까요?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가 베드로의 영혼을 변화시켰습니다.

눅 22:32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은 그의 선함이나 인격, 자발적인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인해 베드로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히 7:25

요 17:20

예수님은 시험당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시험과의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의 죽음 후 다른 이들을 굳게 하라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오순절 날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주님을 못 박았던 바로 그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위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닭 울음소리

정확한 순간의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의 심령을 변화시켰습니다.

눅 22:60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는 바로 그 순간에 닭이 정확히 울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수탉은 1분 1초도 빠르거나 늦지 않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정확한 그 시간에 울었습니다.

※ 수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들을 열거해 보십시오(설교문 참조).

참으로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이 보잘 것 없는 동물이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는 것은 바로 이런 작은 것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민 22:28

예수님의 시선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눅 22:61~62 /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 ☐ 하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그 눈길을 통해 사랑하는 제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를 통곡하게 만든 것은 주님의 사랑의 눈길이었습니다. 주님의 눈길은 베드로의 마음 깊숙이 파고들어 그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던 날 무너졌지만 완전히 빗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다시 되돌려 놓았고 놀라운 소망을 주었습니다.

※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는 대로 표현해 보십시오.

시 66:7

하나님은 베드로를 있는 그대로 만나 주셨고 그를 놀랍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실망시킬 때조차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분의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찢어 찢개고 변화시키십니다.

막 1:15 _____

엡 1:9~10 _____

베드로는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권면하며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벧전 5:6~7). 비록 넘어지고 실패할 지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낙심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 믿음의 기도 |

1.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2.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3. 모든 구역원이 청지기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2010년 10월 29일

5과

하나님의 주권

| 초점 |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라

| 찬송 |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거나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 본문 | 신명기 30:11~15

¹¹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¹²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¹³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¹⁴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¹⁵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회를 네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의 주권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시 103:19). 어떤 것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그분의 창조에 나타난 영광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신 29:29

※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십시오.

우리가 문제에 휘말리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때나 우리 자신의 유익에 초점을 맞출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만약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한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지도를 받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교회는 전통이나 체제, 자체적인 영적 활력이나 기타 이 땅의 어떤 것에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교회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과 교제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지상명령을 지향한다

하나님의 주권은 지상명령을 막지 않습니다.

마 28:18~20 _____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마지막 말씀을 ‘지상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을 때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님의 지상명령 때문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예정론의 교리가 아닌 복음을 들고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가 지상명령에 대한 소명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마 24:14 _____

막 13:10 _____

막 16:15 _____

슬프게도 지상명령은 우리에게 지극히 소홀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을 들고 주님을 필요로 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오순절의 성령강림은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의 증인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행 1:8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을 맞출 때 교회는 더 강해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은 신자들에게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 주십니다. 지금 세계의 교회는 '새로운 프로그램'과 '또 다른 새로운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프로그램에서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로 옮겨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상명령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금 우리를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신 30:11~15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뒤(신 4:44~26:19),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신 28:1~14),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신 28:15~68).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다.

복음전파를 중시한다

하나님의 주권은 복음전파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눅 4:18

골 1:23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우리와 다를 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회개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분의 은총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벧후 3:8~9

엡 2:8~9

베드로와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따라서 복음전파는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에게 복음전파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복음전도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일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해마다 종교개혁주일이 되면 우리는 질문하곤 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종교개혁은 기독교를 깊은 불화 속으로 이끈 거친 논쟁과 투쟁으로 얼룩진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연합이 그리스도 교회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교회는 여전히 교리 문제로 인해 서로 완전히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 16:18 _____

골 1:24 _____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망에 눈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전파를 막는 즉,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형태로든 복음, 지상명령, 전도와 대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 순종하십시오. 믿음으로 말씀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 믿음의 기도 |

1.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 순종하게 하소서.
2.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전파의 삶을 살게 하소서.
3. 십자가 보혈로 충만한 중현교회가 되게 하소서.

남성구역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남성구역예배’는 ‘구역예배 교재’ 중
‘제3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마른 **뼈**들의 골짜기

- ⁽¹⁾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 ⁽²⁾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
- ⁽³⁾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 ⁽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7:1-14)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종 에스겔을 사람들의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겔 37:1~2). 그 곳은 시신들이 묻혔다기보다는 무더기로 내팽개쳐져 있는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겔 37:3).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을지어다”(겔 37:4).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향해 대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겔 37:5~6). 분명 에스겔은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낯선 상황에 두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대언했습니다.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

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겔 37:7~10). 이 얼마나 놀라운 환상입니까!

소망을 준다

에스겔이 본 환상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은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겔 37:11). 그 뼈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무기력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앗수르와 바벨론의 압제와 학대를 받아 흩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생각하며 마른 뼈를 볼 때 발견되는 삶의 법칙은 하나님을 청종하면 살고,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으면 끔찍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신 28:1). 그는 또한 말했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신 28:15). 소망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께서 오셨을 때조차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순종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 진리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된다

하나님은 고통 받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향해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뼈들의 움직임은 이스라엘이 본토로 돌아갈 것을 예표합니다. 42,360명의 남은 자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본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느 7:66 ; 스 2:64). 만약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데려가셔서 그들에게 대언하라고 명령하셨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왜냐고 물었을 것입니다. 이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접 하시라고 요구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른 뼈들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른 뼈들을 향해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생각에 의존할 때 그 어떤 것도 영적인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해 그리스도께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 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와 그의 입의 말씀이니라”(사 1:16~20).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혀 가망이 없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분 홀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있는 그 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향해 대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

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겔 37:12~14). 에스겔은 의심 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을 행했고 그것은 실제로 역사했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불어 넣어진 생기는 미래에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새로운 탄생과 영생의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 11:25~26).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살 것입니다! 신자들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실 때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행 1:8).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곳을 영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들의 골짜기와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논쟁해야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바쁘고, 경험도 없고, 형편도 어려우며,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변명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마른 뼈들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이 좋은 곳만을 찾아가길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끔찍한 상황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른 뼈들의 골짜기로 오셨고 잔인하고 추악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요 19:30).

우리는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주님은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어마어마한 군대가 소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그의 모든 축복과 함께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간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믿지 않은 채로 죽게 된다면, 혹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지옥의 무덤에 묶이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며, 하나님 외에는 그리스도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오늘이 구원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10년 10월 Copyright © 2010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진홍용

집필진 | 양재웅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